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강은진 연구위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안착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2월을 목표로 원장(감)과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일회적인 연수에 그치지 않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관련 인력도 양성한 상태이다. 본 고에서는 간략히 컨설팅의 과정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2020년 3월 현장 안착을 위해 각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준비할 사항들을 시범 기관의 사례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1. 개정 누리과정 연수와 컨설팅의 배경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유아 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먼저 전국의 교육전문직을 위한 연수가 총 2회, 유치원 관리자 연수가 총 10회 실시되었다. 현재는 전국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위한 개정 누리과정 연수(8차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한 교육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개정 누리과정을 시범 적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교육(4월 6일)과 컨설팅트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이 과정을 공유하는 중간보고회(8월 10일)와 최

종 결과보고회(11월 15일) 자리도 마련하였다. 또한 내년 컨설팅의 시행을 돕기 위한 컨설팅트 200명을 양성하는 1박 2일 교육도 실시하여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개정 누리과정의 고시와 함께 이렇게 중앙에서 전문직, 관리자(원장, 원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첫 고시된 이후에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사 용지도서가 함께 제공되었는데, 이러한 지원이 오히려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사들이 교사용지도서를 교과서처럼 인식해 유아들에게 모두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내용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전하며 교사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만나고 더 직접적으로 변화를 공유하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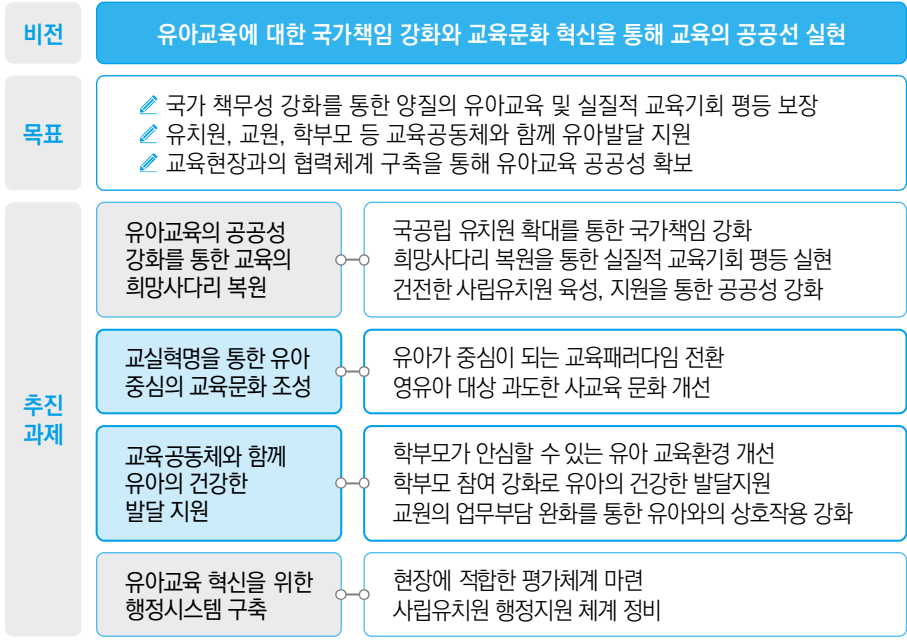
둘째,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과 자율성이다. 자율성은 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고시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의 방향이 결정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편성·운영 지침이 마련된다. 그리고 개별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교사와 원장(감)의 관계와 조직문화가 결과적으로는 교사의 자율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자율적 누리과정 실행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에 대한 연수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지역의 연구사 및 장학사, 장학관 등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2.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실행력 강화

1)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부는 2018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개정 누리과정 고시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한 교육의 공공선 실현을 비전으로서, 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특히 ‘추진과제 2.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에서는 유아 중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있으며, ‘추진과제 3.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은 유아중심 교육을 위한 지도방법의 변화 촉진, 유아와 현장이 중



자료: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2018. 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p. 8.

[그림 1]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심이 되는 혁신 유치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을 위한 교원의 역량강화와 학부모, 교원, 유아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협력체계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가 다양한 수업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사례 소개나 개편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컨설팅의 강화가 제안되고 있다.

2)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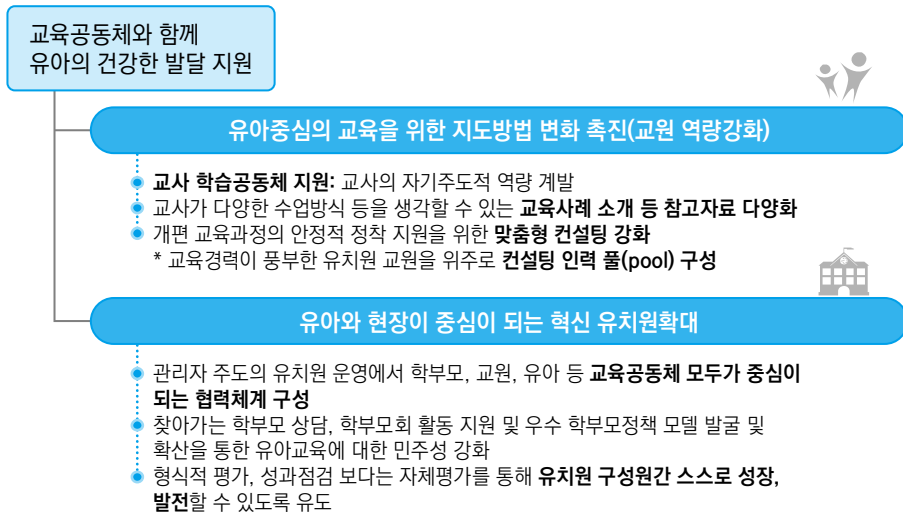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¹⁾에서 제시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 체계 확립, 내용구성의 간략화(대강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의 확대,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지원”에 이러한 기본 철학과 전제가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유아”와 “놀

이”에 대한 강조이며, 교사의 놀이실행력과 책무성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교사가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하기보다 실제 이루어지는 유아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유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며, 함께 놀이함으로써 유아의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놀이와 배움에 대한 주도권을 유아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는 미리 짜인 계획표가 아니라 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경험하는 내용들을 포착하고, 유아의 경험이 통합되도록 지원해 주는 등 교육과정 실행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²⁾.

2019년 7월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교사들의 자율성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비교해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을 살



[그림 2] 전라과제 3의 내용

1) 교육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보도자료(2019. 7. 19).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 유아의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3-5세 공통 교육과정.
2) 문복진(2019). 유아 눈높이에서 '놀이'로 배우는 즐거움 「2019 개정 누리과정」, 행복한 교육 8월호.

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내용이 간략화되면서 교사들에게 누리과정의 내용이 가르치고 완수해야할 지식이 아니라 경험해야할 내용이 됨에 따라 교육과정 실행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계획안은 기관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교사의 자율에 맡기기도 있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 유아의 놀이경험을 배움으로 연결하기 위해 생활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내외 환경 구성에 있어서도 환경구성의 원리를 준수하기 보다는 유아의 놀이의 흐름에 맞게 조성할 수 있다

는 자율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 부분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관찰과 평가 방법을 목적, 대상, 방법, 활용으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어서 평가에 대한 자율성도 제안하고 있다.

3. 교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방향³⁾

개정 누리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해도 과

〈표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의 신규대조에 따른 교사의 역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자율성
구성의 방향	만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구성의 중점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연령별 세부내용(368개)에서 연령구분 없이 59개 내용으로 간략화한다.
편성	나.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라. 반(학습)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5개 영역의 균형있는 통합에 방점을 두거나, 다양한 계획안(연간, 월간, 주간, 일일) 작성을 강조하기보다 기관과 교사의 계획에 대한 자율성을 제시한다.
운영	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나.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중략) 바. 교사재교육을 통해서 누리과정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	편성·운영 아. 교사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교사재교육이라는 용어를 교사연수로 두어 집합연수뿐만 아니라 소집단 모임이나 컨설팅, 학습공동체 등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교수·학습 방법	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실내·실외활동, 정적·동적활동, 대소집단활동 및 개별활동, 휴식 등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수·학습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유아의 놀이 경험을(생활)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하도록 제안한다. 실내외 환경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보다 유아의 놀이와 연계되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하도록 제안한다.

자료: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문,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비교
2) 교사 연수자료

3) 교육부 수탁과제로 진행 중인 2019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사업 중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 사업(강은진 외, 2019)의 중간보고회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함.

언이 아니다. 그만큼 교사 연수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일회성 교육에서 그치지 말고 지역 내 현장 교사들의 놀이 중심 교육 공동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4월에 시작한 개정 누리과정 시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최근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 마다 1인의 컨설턴트가 배정되었으며, 최소 3회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및 원장(감)과 지역의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턴트 200인도 함께 양성하였다. 이들은 2020년 각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인력들이다.

컨설팅이 이루어진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그림 3]과 같다.

1) 사전 이해 및 준비과정

컨설팅의 첫 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건과 특성, 철학에 맞는 컨설턴트가 잘 연결하는 것이다. 각 조직마다의 성향과 문화가 있어 이와 유사한 컨설턴트를 배치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전혀 방향이 다른 컨설턴트로 기관에서

익숙했던 것들을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도 한다. 먼저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싶은 내용들을 사전에 논의해 '사전질문지'를 작성해 배치된 컨설턴트에게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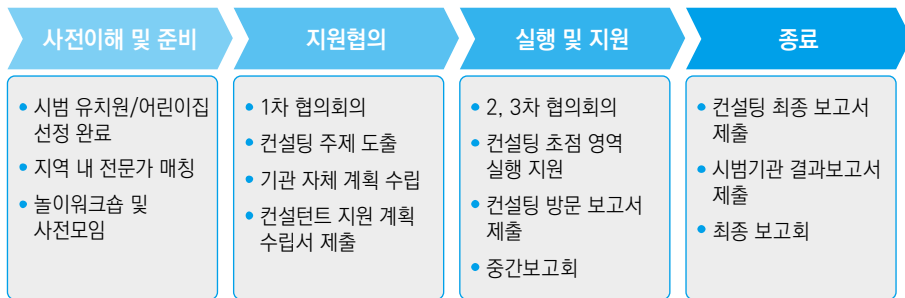
2) 지원 협의

1차 컨설팅은 앞서 준비한 사전질문지를 통해 시작한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의 초점 영역을 정하고 그에 대한 기관의 자체계획을 세워보고, 컨설턴트는 어떠한 부분을 지원할지에 대해 미리 계획하도록 한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강의나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각 기관과 교사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개정 누리과정의 컨설턴트들에게도 필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이다.

1차 컨설팅의 초점 영역

시범 기관에서 1차 컨설팅 때 주로 나누었던 컨설팅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 이해와 인식 공유
-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사례와 어려움
- 현황 파악 및 교사간 협의 방식에 대한 파악



[그림 3] 컨설팅의 과정

- 변화의 초점 정하기: 교사가 생각한 놀이와 유아가 생각한 놀이와의 간극, 공간과 자료, 계획과 유아 관찰 기록, 관계(교사 간, 학부모, 유아, 저경력 교사)

3) 실행 및 지원

실행과 지원 단계에서는 1차 컨설팅에서 수립한 계획의 실행에 대한 교사들의 수행 및 그 과정에서의 고민을 듣는다. 기관에서 허용한 경우는 실제 유아들의 놀이 장면을 함께 관찰하고 난 다음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 때 컨설턴트의 중요한 역할은 새로운 시도를 하며 시행착오를 하는 교사들의 불안감을 다독여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해 교사들끼리만 논의하다 보면 해답을 찾기 어려워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1차와 2-3차 컨설팅은 시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진다. 컨설턴트와 기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SNS를 통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실제 시범 기관들을 적용의 결과 2차와 3차 컨설팅의 초점 영역의 내용은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2차 컨설팅의 초점 영역

- 연령별 자유놀이의 실제 관찰과 교사의 고민
- 자유놀이를 제한하는 문제점 발견하기
-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통한 교사의 변화
- 저연령 유아에 대한 놀이지원
- 특수교육대상아에 대한 놀이지원 방안
- 놀이 돌아보기(유아의 놀이평가)

4) 지원 종료 또는 지속적 컨설팅

시범 적용 기간 중에는 컨설팅을 3회로 제한 하였으나, 지역이나 기관의 여건에 따라 컨설팅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컨설팅의 과정은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기관의 준비를 돕는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는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요구 사항과 구체적인 초점 영역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해 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공간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놀이터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계획안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욕구를 파악해 대집단 워크숍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수도 있다.

4. 컨설팅을 통한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향후과제⁴⁾

앞서 제시한 대로 개정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은 12월 말이면 오픈될 예정이다. 현재 전세기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교의 역할,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AI의 발전으로 교사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16)과 BBC(2016)의 미래 예측에서는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전통적 패러다임

4) 강은진(2019).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준비. 한국열린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함.

의 교원의 역할은 줄어들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다. 미래 교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다양한 지식들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능 정보 역량, 융합적 통합적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 네트워크 역량, 공동체 역량, 감성 역량이 이에 해당된다⁵⁾.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은 놀이 역량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따라 교사로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놀이에 따라가고 함께 몰입하며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가. 컨설팅을 위한 현장의 준비

현장에서 “유아”와 “놀이” 중심 교육문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제안한다.

첫째, 우리 원의 공간, 시간, 자료 등에서 유아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 공간과 교실에서 유아에게 권한을 넘겨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유아가 스스로 시작하고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허용 되는지, 원하는 자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유아의 눈높이에서 보면 생각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 자료 역시 교사들이 제공한 것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들은 유아의 놀이 공간을 띄워주기 위해 공간, 시간, 자료의 틀을 깨 보는

거였다. 정해진 흥미영역을 확장하거나 통합하기도 하였고, 유아의 놀이에 따라 생성된 새로운 영역을 만들기도 하였다. 놀이 공간을 교실에 제한하지 않고 공용공간(복도, 계단 등)과 실외까지 확장하여 놀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유아들에게 놀이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준 것도 달라진 점이었다. 다른 활동을 위해 정리하는 시간만 줄여도 유아들이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장(감)과 교사의 합의를 통해 간소화하고, 계획보다 실행에 초점을 두어 작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교사들이 놀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사가 놀지 못한다면 유아의 놀이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사들의 새로운 역할 중 하나는 유아와 함께 푹 빠져 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도 유아와의 놀이가 과제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잘 놀아야 한다. 생각보다 자유롭게 놀이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가 적다.

셋째, 교사에게 해당 반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지는지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해당 기관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인지, 교사들 간에 협력이 가능한 조직문화인지 교직원들 간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계획안이나 평가 양식이 모두 동일해야 하지는 않든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협력을 통해 고민의 과정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원장선생님과 원감선생님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순간일 것이다.

넷째, 우리 원의 학부모들은 유아의 놀이에

5) 임종현, 유경훈, 김병찬(2017).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해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 누리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님들과의 협력이다. 학부모들의 놀이를 위한 이해를 높여주고 자녀와의 놀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량인지, 기존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미래에는 더 이상 필요한 능력이 아니며, 창의력과 협력,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이 더 필요함을 알려줌과 동시에, 자녀들과 상업화된 장난감 없이도 몸 놀이나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놀 수 있다는 것, 놀이가 지닌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해 주는 것 등 부모들의 놀이 역량을 길러주는 부모교육 역시 필요하다. 일방향적인 강의형태보다는 학부모들이 실제 놀이할 기회를 주는 형태의 워크숍도 제안한다. 놀이해 보며, 유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가정에서 유아의 놀이도 지원해 줄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다른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소모임이나 학습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주도성과 책무성은 교사 개인, 단일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개정 누리과정 시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단순히 모범사례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며,

컨설턴트로서 각 지역의 개정 누리과정이 잘 안착되도록 동료 교사들과의 토의와 나눔을 이끌어 갈 곳이라 기대한다.

여섯째,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킹하여야 한다.

나. 컨설턴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직과 유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지원과 함께 기본적 유아 대 교사 비율, 교실 및 보육실의 면적 기준 등 구조적 질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누리과정의 안착과 함께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추진과제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 연수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각 지역마다 교사들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소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자체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통해 200인의 컨설턴트가 양성되었으나, 컨설턴트의 전문성도 1회 교육으로 유지관리 되는 것은 아니다. 컨설턴트를 위한 지속 교육과 지역단위 컨설턴트 간의 협의체와 소모임 구성도 필요할 것이다.